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싸우는 사람 없는 새해 되었으면...”

2004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와 질병이 사라지고 '나' 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새해를 맞는 서울 미타유치원의 새싹들이 '싸우는 사람없는 즐거운 세상'을 염원하며 새아침의 햇살을 받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이념의 갈등 극복하고 대화·화합의 해 되길”

법장 총무원장 신년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이 2004년 갑신년을 맞아 양보와 화합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세계일화(世界一花, 온 인류가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운명체라는 뜻을 예로 들며 “국가와 민족,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우리 사회가 상호 이해와 양보,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또 “부패와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전환점을 맞이 위해서는 자기만 살겠다는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되새겨 실천해야 한다”며 “상생과 희망의 역사를 밝혀 나가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2004 甲申年,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특별법석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 12~13면

특집1 - 명사와 함께 여는 새아침

· 김종서 원로 교육학자 - 6면

특집2 -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쓰자

·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 27~29면
 · 한국불교 희망찾기 - 31~32면
 · 불자 스타들의 희망 쓰기 - 33면

특집3 - 종교패러다임의 변화와 불교

· 프롤로그 - 35면
 · 불교, 종교문화의 중심인가 - 36면
 · 미래사회에 대한 불교적 비전 - 37면
 · 미래사회 불교가 직면할 도전 - 38면

특집4 - 조계종 개혁 10년을 말한다

· 좌담(청화스님, 정병조, 성태용 교수) - 42~43면

기획

· 2004년 불교계 핫 이슈들 - 3면
 · 문수사와 신곡리의 새해 맞이 - 8면
 · 새해는 원승이의 해 - 26면
 · 인터넷 세상의 새아침 제안 - 47면

제9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 16~17면

불교에 ‘내일의 행복’ 있다

본지, 독자설문조사 수행전통·사찰문화 계승돼야

“사회적 역할 약해... 변화 필요” 94.8%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다. 그러나 현재가 있다. 변화다.’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불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특집 27·28·29면

이같은 결과는 본지 구독자 711명의 응답을 종합한 것이며, 이 가운데에는 스님(200명)과 불교신도(327명) 외에 비불교인(타종교인 및 무종교인) 182명(25.6%)도 포함돼 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실시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불교를 지목했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5~6%대에 불과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불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94.8%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혁 수준의 변화’를 주문한 비율도 36.4%에 달했다.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로서의 기능 부족과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9.5%나 됐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바꾼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인 셈이다.

응답자들의 이런 주문은 계율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대흐름에 따

라 계율도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7%나 됐고, 이에 따라 스님에게 육식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60%에 달했다.

한국불교가 발전 계승시켜야 할 항목으로는 사찰 문화나 교리, 계율 정신 등과 비교해 수행전통(38.5%)이 압도적이었으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스님의 자질(19.0%)이 1순위였다.

‘불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산사(41.5%)와 수행하는 스님(35.4%)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사찰 방문을 계획하고 있거나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종교인이 도덕·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불교’(3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는 천주교(41.3%)로 나타났으며, 불교는 36.3%였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출범

천태종, 통일·환경 등 5개 위원회 구성

천태종이 환경과 생명, 인권과 평화, 남북 통일,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전담할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창립했다.

천태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관문사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총재에 윤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이 선임 됐다.

통일, 환경, 노동인권, 국제협력, 기획 등 5개 위원회로 구성된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총재 윤덕 스님은 “불교는 안으로는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밖으로는 회합의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일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일,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인류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사장 선출 6일로 연기

동국학원, 영배 스님 대행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출이 1월 6일 이후로 연기됐다.

동국학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제 195회 이사회를 열어 정대 스님의 임

적으로 공석이 된 신인 이사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사들 간의 견해의 불협화음에 따라 1월 6~16일 사이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배 스님을 이사장 직 무대행으로 선임해 새 이사장이 뽑힐 때까지 이사장 업무를 보게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해에는 큰 뜻 이루소서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할’

그림·조태호

- 법전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13면에서 만나세요) -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불사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佛紀 2548년 謹賀新年

함께하는 중단·신뢰받는 중단

우리 중단은 새해 갑신년에도 모든 중도가 참여한 가운데 수행승풍을 진작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효율적인 중단 운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도계양정의 기틀을 새롭게 하고 역사문화기념관을 완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승가상을 구현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총무원장 법장 · 중앙총회의장 지하 · 호계원장 월서